

제3장. 말줄기와 토의 적기

제8항. 말줄기와 토가 어울릴 때에는 각각 그 본래형태를 밝혀 적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 같다, 같으니, 같아, 같지
 날다, 날으니, 날아, 날지
 삶다, 삶으니, 삶아, 삶지
 입다, 입으니, 입어, 입지
 집이, 집을, 집에
 팔이, 팔을, 팔에
 흙이, 흙을, 흙에

제9항. 오늘날 말줄기에 토가 붙은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것들을 밝혀 적지 않는다.

	올음	그름
례:	고치다	곧히다
	나타나다	날아나다
	바라보다	발아보다
	바치다	받히다
	부러지다	불어지다
	사라지다	살아지다
	자라나다	잘아나다

자빠뜨리다 잡바뜨리다

말줄기에 토가 붙은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뜻이 짝 단어로 바뀐것은 그 말줄기와 토를 밝히지 않는다.

	올음	그름
례:	드러나다	들어나다
	스무나문	스물남은
	쓰러지다	쓸어지다
	(열흘)나마	(열흘)남아
	(고개)너머	(고개)넘어

제10항. 일부 형용사, 동사에서 말줄기와 토가 어울릴때에 말줄기의 끝소리가 일정하게 바뀌어지는것은 바뀐대로 적는다.

1) 말줄기의 끝을 《ㄹ》로 적거나 적지 않는 경우

례:	갈다 - 갈고, 갈며, 갈아
	가니, 갑니다, 가시니, 가오
	돌다 - 돌고, 돌며, 돌아
	도니, 돛니다, 도시니, 도오
	불다 - 불고, 불며, 불어
	부니, 뵙니다, 부시니, 부오

2) 말줄기의 끝을 《ㅅ》으로 적거나 적지 않는 경우

례: 낫다 - 낫고, 낫지
나으니, 나아
짓다 - 짓고, 짓지
지으니, 지어
잇다 - 잇고, 잇지
이으니, 이어

3) 말줄기의 끝을 《ㅎ》으로 적거나 적지 않는 경우

례: 벌겋다 - 벌겋고, 벌겋지
벌거오, 벌거니, 벌겁니다
벌개서
커다랗다 - 커다랗고, 커다랄지
커다라오, 커다라니, 커다랍니다
커다래서
허옇다 - 허옇고, 허옇지
허여오, 허여니, 허엽니다
허애서

[붙임]

《ㅎ》 받침으로 끝난 본래의 말줄기가 두 소리마디이상으로 된 형용사, 동사는 모두 여기에 속한다.

4) 말줄기의 끝 <ㄷ> 를 <ㄹ> 로도 적는 경우

례: 걷다 - 걷고, 걷지
 걸으니, 걸어
 듣다 - 듣고, 듣지
 들으니, 들어
 묻다 - 묻고, 묻지
 물으니, 물어

5) 말줄기의 끝 <ㅂ> 을 <오(우)> 로도 적는 경우

례: 고맙다 - 고맙고, 고맙지
 고마우니, 고마와
 곱다 - 곱고, 곱지
 고우니, 고와
 춍다 - 춍고, 춍지
 추우니, 추워

6) 말줄기의 끝 <ㄹ> 를 <르ㄹ> 로도 적는 경우

례: 누르다 - 누르고, 누르지
 누르러, 누르렀다
 푸르다 - 푸르고, 푸르지
 푸르러, 푸르렀다
 이르다 - 이르고, 이르지
 이르러, 이르렀다

7) 말줄기의 끝 <ㄹ> 를 <ㄹㄹ> 로도 적는 경우

례: 기르다 - 기르고, 기르지

길러, 길렀다

빠르다 - 빠르고, 빠르지

빨라, 빨랐다

8) 말줄기의 끝 《一》를 적거나 적지 않는 경우

례: 고프다 - 고프고, 고프지

고파, 고했다

부르뜨다 - 부르뜨고, 부르뜨지

부르터, 부르텠다

뜨다 - 뜨고, 뜨지

떠, 텠다

9) 말줄기의 끝 《ㄷ》를 적거나 적지 않는 경우

례: 푸다 - 푸고, 푸지

퍼, 폼다

제11항. 말줄기가 《아, 어, 여》 또는 《았, 었, 였》과 어울릴 때에는 그 말줄기의 모음의 성질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적는다.

1) 말줄기의 모음이 《ㅏ, ㅑ, ㅓ, ㅕ, ㅗ, ㅛ》인 경우에는 《아, 았》으로 적는다.

례: 막다 - 막아, 막았다

얹다 - 얹아, 얹었다

오다 - 와, 왔다

따르다 - 따라, 따랐다

오르다 - 올라, 올랐다

[붙임]

말줄기의 모음이 《ㅏ, ㅑ》 인것이라도 합친말줄기인 경우에는 《어, 었》으로 적는다.

례: 받들다 - 받들어, 받들었다

곰들다 - 곰들어, 곰들었다

쫓들다 - 쫓들어, 쫓들었다

2) 말줄기의 모음이 《ㄷ, ㅌ, ㅊ, ㅍ, ㅌ, ㅍ, ㅍ, ㅍ, ㅍ, ㅍ, ㅍ》인 경우에는 《어, 었》으로 적는다.

례: 날다 - 날어, 날었다

겪다 - 겪어, 겪었다

두다 - 두어, 두었다

크다 - 커, 컸다

거들다 - 거들어, 거들었다

부르다 - 불러, 불렀다

흐르다 - 흘러, 흘렀다

치르다 - 치러, 치렀다

3) 말줄기의 모음이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인 경우와 줄기가 《하》인 경우에는 《여, 였》으로 적는다.

례: 기다 - 기여, 기였다

개다 - 개여, 개였다

베다 - 베여, 베였다

되다 - 되여, 되였다

쥐다 - 쥐여, 쥐였다

희다 - 희여, 희였다

하다 - 하여, 하였다

그러나 말줄기의 끝소리마디에 받침이 있을 때에는 《어, 었》으로 적는다.

례: 길다 - 길어, 길었다

심다 - 심어, 심었다

짓다 - 지어, 지었다

[붙임]

부사로 된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말줄기와 토를 갈라 적지 않는다.

울음

그름

례: 구태어

구태어

도리어

도리어

드디어

드디어

제12항. 모음으로 끝난 말줄기와 모음으로 시작한 토가 어울릴 때에 소리가 줄어든것은 준대로 적는다.

례1: 가지다 - 가지어, 가지였다

가지다 - 가져, 가졌다

고이다 - 고이여, 고이였다

괴다 - 괴어, 괴었다

모이다 - 모이여(모여),

모이였다(모였다)

되다 - 되어, 되었다

보다 - 보아, 보았다

보다 - 봐, 봤다

주다 - 주어, 주었다

주다 - 줘, 줬다

꾸다 - 꾸어, 꾸었다

꾸다 - 꺾, 꺾다

뜨이다 - 뜨이여, 뜨이였다

띄다 - 띄어, 띄었다

쏘다 - 쏘아, 쏘았다

쏘다 - 쏘, 쏘다

쏘이다 - 쏘이여, 쏘이였다

씌다 - 씌어, 씌었다

쓰이다 - 쓰이여, 쓰이였다

씩다 - 씹어, 씹었다

쫓이다 - 쫓이여, 쫓이였다

쪼다 - 쪼어, 쪼었다

례2: 되다 - 되어서, 되였다

되다 - 돼서, 됐다

하다 - 하여서, 하였다

하다 - 해서, 했다

례3: 개다 - 개여서, 개였다

개다 - 개서, 갔다

메다 - 메여서, 메였다

메다 - 메서, 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줄어든대로 적는다.

례1: 살찌다 - 살찌, 살졌다

지다 - 져, 졌다

치다 - 쳐, 쳤다

찌다 - 찌, 찼다

례2: 건느다 - 건너, 건넜다

잠그다 - 잠가, 잠갔다

치르다 - 치러, 치렀다

크다 - 커, 컸다

쓰다 - 써, 썼다

례3: 가다 - 가, 갔다

사다 - 사, 샀다

서다 - 서, 섰다

켜다 - 켜, 켰다.

제13항. 말줄기의 끝소리마디 《하》의
《ㅏ》가 줄어들면서 다음에 온 토의 첫소리자
음이 거세게 될 때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본 말	준 말
례:	다정하다	다정타
	레하건데	레컨대
	발명하게	발명케
	선선하지 못하다	신선치 못하다
	시원하지 못하다	시원치 못하다

그러나 《아니하다》가 줄어든 경우에는 《않다》
로 적는다.

	본 말	준 말
례:	넉넉하지 아니하다	넉넉치 않다
	서슴지 아니하다	서슴치 않다
	주저하지 아니하다	주저치 않다

[붙임]

이와 관련하여 《않다》, 《못하다》의 앞에 오
는 《하지》를 줄인 경우에는 《치》로 적는다.

례: 고려치 않다, 괜치 않다, 넉넉치 않다,
만만치 않다, 섭섭치 않다,
똑똑치 않다, 우연치 않다, 편안치 못
하다, 풍부치 못하다